

# “불교사회복지 미래, ‘인재양성·역량강화’가 해답”

## 조계종복지재단, 창립20주년 역사와 미래전략 ‘조명’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에 조계종복지재단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불교의 위상 및 대사회적 역할 확립을 위한 포부를 다지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995년 2월 25일 설립됐다.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출범 당시,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중단 사회복지 전문기구 설립’이 제안되며 본격 추진된 것이 그 시초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재단의 발전 노력은 1990년대 초 90여개에 불과하던 전국 불교사회복지시설이 현재 1천 1백 개가 넘어서는데 마중물이 됐다”면서 “현재 재단은 불교 교세가 취약한 지역에서 지역복지 및 자원봉사, 소외계층 심터 기능을 수행하며 포교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조계종복지재단은 최근 2~3년 사이 ‘긴급재난구호’ 부문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나타냈다. 1996년 파주·연천지역 수해피해복구사업이 단초가 돼 2005년 발대된 ‘조계종긴급재난구호봉사대’는 2013년 우면산 산사태, 2014년 세월호 사고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구호활동을 펼쳤

다. 지난 8월에는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세월호 구조지원 활동과정 및 평가를 담은 ‘세월호참사현장 불교계 지원활동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중환 사무국장은 재난구호 부문서 조계종복지재단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최 사무국장은 “최근 정부 국민안전처 관계자들과 함께 재난재해발생과 관련 정보 교류 및 역할 분담을 의논하며 공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사회적으로 재단의 역할이 더욱 막중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현재 조계종긴급구호봉사대를 긴급구호봉사단으로 격상시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조계종복지재단이 1995년 8월 발족한 ‘조계종자원봉사단’도 일반봉사를 비롯해 골기경락·염불·호스피스·집수리봉사 등 전문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하며, 대통령 표창 및 현대아산재단의 아산상 등 수상한 바 있다. 조계종자원봉사단에는 3천여 명이 소속돼 월 평균 7백여 명이 활동 중이다.

현재 조계종복지재단은 노인·장애인·아동 및 청소년·다문화·한부모·노숙

인·어린이집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산하 182개(2015년 10월 1일 기준)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이 각각 46개와 45개로 가장 큰 수를 차지하며, 장애인복지관이 32개, 지역사회 복지관이 25개로 그 뒤를 잇는다. 이 중 약 85%가 공공기관의 위탁운영을 맡아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위탁운영의 경우 불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못해 포교 활성화에 영향을 미

**1994년 중단개혁 시초돼 출범**  
**전국 182개 산하시설 운영**  
**자원봉사·재난구호부문성장 ‘팔목’**  
**“긴급구호대, 봉사단으로 격상”**  
**복지종합센터 및 대학원 설립 추진**

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적돼 왔다. 위탁운영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국고 지원의 틀 안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며, 종교적 성격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계종복지재단은 보편적으로 유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나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으로 불교적 특성을 도입했다. △난치병어린이집 3천배 철야정진 △사회복지봉사자들에 대한 명상 및 참선 교육 △산하시설 직원 윤리교육 등이 그 예다.

최중환 사무국장은 “위탁운영 중인 산하 시설은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함께하는 곳이기에 불교적 성향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면서 “난치병어린이집을 위한 3천배 철야정진 모금행사와 같은 행사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돼 불교 수행법도 전파한 사례다. 이밖에도 수행·명상 등 대중적 프로그램 운영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최 사무국장은 ‘인재개발’과 ‘역량강화’를 꼽았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올 1월 불교계복지사업을 총괄하는 ‘불교복지종합센터’와 인재양성을 위한 ‘불교복지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중장기 전략으로 발표한 바 있다. 조계종 성역화 사업과 맞물려 향후 5년 간 추진할 위 2개 사업은 전국에 흩어진 불교사회복지시설의 ‘컨트론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 사무국장은 “조계사를 중심으로 성역화가 본격 추진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2개 사업도 구체화될 것”이라며 “재단 만의 성장이 아닌 불교계복지시설 1천 1백 곳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이 될 것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08년 2월 22일 ‘창립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올해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1월 23일 오후 2시 AW컨벤션센터에서 ‘창립2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다. 불교와 복지가 접목된 전문가들에 대한 육성이 바로 불교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은 11월 23일 오후 2~8시 AW컨벤션센터에서 ‘창립20주년 기념법회 및 제17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제1부 학술심포지엄 ‘지역사회 기반 복지공동체 구축방안’ △제2부 창립20주년 기념법회 △제3부 힐링콘서트 ‘더 나눔’ △제4부 만찬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이날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유

공자 및 창립20주년 불교사회복지공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거행될 예정이다. 매년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유공자를 선정하고 조계종 총무원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표창해 온 조계종복지재단은 올해 2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시설운영·관리부문 △후원·봉사부문 △학술연구부문 △발달장애아동복지사업 등에서 활약한 공로자들을 선정해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님 등 10인에 총무원장표창을 수여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추위 속에 온기를... 불교계 자비손길 ‘분주’

### 아름다운동행·조계종복지재단 등 쪽방촌 주민 지원 나서

커피한 잔 값에 연탄 5장  
지인 3명 추천 ‘릴레이 기부’  
영등포 쪽방촌에 김장 지원도

추운겨울 동장군에 맞서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려는 불교계 움직임이 분주하다. 좋은 일은 함께 하면 행복이 두 배가 되는 법, 아름다운동행이 쪽방촌 주민 및 저소득가정을 위한 연탄기부 동참을 이끌고 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연탄기부캠페인 ‘아이연탄맨’을 실시한다. ‘아이연탄맨’은 지난해 큰 반응을 일으킨 기부동참 릴레이 ‘아이스버킷챌린지’에서 착안한 연탄기부릴레이 사업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전국 16만 가구 이상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만 가구는 저소득가정으로 연탄 지원이 절실하

다. 쪽방촌 가구 중 55.2%인 70대 이상 노인 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면서 “겨울 나기를 위해 한 가구당 필요한 평균 연탄수는 6백 장, 총 36만원 난방비가 필요하다”며 연탄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기부 희망자는 전화 한 통을 걸어 3천원을 후원하면 연탄 5장이 적립된다. 이후 손바닥에 연탄 그림을 그린 후 찍은 사진을 지인 3명 및 아름다운동행(010-7376-9595)에 전송하면 캠페인 참여가 완료된다. 아울러 기금동참도 가능하다.

사무총장 자승 스님은 “아이연탄맨은 우리가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매년 연말 진행된다. 아직도 연탄을 쓰는 가정이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도움을 절실히 기다린다”며 “3천원으로 커피한 잔 대신 연탄기부에 동참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737-9595

아울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은 연탄기부캠페인 ‘아이연탄맨’을 실시한다.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1월 10일 오후 2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6회 따뜻한 아랫목 만들기-김장행사’를 개최한다. 한화S&C 및 동국대 국제교류센터 한화S&C멘토링 프로그램 대학생들과 함께 3천kg 김장을 담가 영등포구 쪽방촌 약 3백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영등포 쪽방촌은 5

백 41개 쪽방에 소외계층 6백 17명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지역 5대 쪽방촌 중 가장 열악한 곳이다. 이에 복지재단 산하 자원봉사단 쪽방도우미봉사회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화S&C는 쪽방도우미봉사회 소식을 전해 듣고 김치 외에 5백kg 백미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 ‘연극의 메카’ 대학로서 ‘실버 열정’ 펼쳐다

### 5개 노인복지관 참여 ‘제1회 서울시니어연극제’ 개막

“대사 까먹을까봐 걱정돼 죽겠네.” “팬 잡아, 많이 연습했으니까 걱정 마.” “연극배우’라 적힌 명찰을 왼쪽 가슴에 단 어르신들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 묻어났다. 대사를 잊어버릴까 걱정하는 시니어 배우와 옆에서 다독이는 동료들의 모습이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과 서울 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구자훈)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서울시니어연극제’ 개막식이 11월 12일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최희우 스님, 정세균 국회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 배우 전원주씨를 비롯해 관객 1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사와 축사에 이어 내빈들 및 5개 기관 연극단 대표 어르신 배우들의 테이프 컷팅식, 핸드프린팅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다시 청춘이다!”를 함께 외치며 자란 개막을 알렸다.

이날 개막작으로는 종로노인복지관 연극단 ‘대학노애(老愛)’의 ‘삼시세끼’가 올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서울시니어연극제’ 개막식이 11월 12일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열렸다.

랐다. 극 중 주인공 장숙자 역을 맡은 김상미(여·73)씨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연극제 연습을 해 왔다. 이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의 인성을 살 아본다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면서 “대본을 외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 무사히 연극을 마칠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연극제에서는 △종로복지관의 ‘삼시세끼’ △동작복지관의 ‘처음으로 돌아가라’ △양재복지관의 마당놀이극 ‘원불정통’ △구로복지관의 ‘뽕뽕서 윤일갑이 들려주는 우리네 인생이야기’ 등 무대가 마련됐다.

박아름 기자

##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종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격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치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치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가곡,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전범패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가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